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아모스서-

## 여호와의 날 (아모스 5장 6 - 27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욘 8:5-6).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확실한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물건만 잃어버려도 조바심을 하면서 그것을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는 찾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빛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에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 1. 이스라엘의 무서운 죄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바르게 옳은 말하는 자를 싫어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을 듣기 위해 귀를 막고 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국가의 지도자가 옳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들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11절).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학대하는 죄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이 억울하게 합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힘없고 없는 사람에게는 무섭게 적용되고, 힘 있는 자는 비껴간다는 이것은 분명 잘못된 사회입니다.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13절).

사회가 너무 악해서 지혜자가 감히 입을 열지 못하니 참으로 불행한 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시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흑시 요셉의 남을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15절).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것은 재판하는 자리에서 정의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흑시 용서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재판을 했습니다. 사법이 흔들리면 그 나라는 끝장이 나게 됩니다.

### 2.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람

“정의를 쓴 쪽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7절).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방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

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8절).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욘 27:7).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떨시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21-2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이 아닌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정의가 없고 공의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거룩한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편법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닙니다. 공의는 신앙의 생명입니다. 교회까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불의에 빠진다면 이 사회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 3. 여호와의 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여인이 맺들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예수님께 데려감을 받고, 또 한 사람을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로 맞이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18절).

여호와의 날은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날은 어둠의 날이고 진노의 날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으니 고독한 날입니다. 이 날에는 홀로 지옥에 던짐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에 빠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피할 곳이 없습니다. 환난의 연속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소망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 신령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 20일(주) 새벽 5시 우리 교회당에서 드려

서울 강남 노회는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우리 교회 당에서 5시에 갖기로 하였다.

이 날 설교는 김순권 목사(경천 교회 담임, 부총회장)가 찬양은 시온 찬양대 주관으로 연합찬양대가 드리게 되고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는 축도를 맡게 된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연합찬양대는 15일(화) 오후 7시 502호에서 연습한다.

# 육사 세례식

4월19일(토) 오후 2시 육사 교회당에서

우리교회는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기위한 비전2020 운동의 일환으로 진중 세례식, 사랑의 온차 나누기 운동들과 함께 육군 생도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집행하는 육사 세례식을 매년 갖고 있다.

특히 육사 세례식은 이 나라의 초급장교로 임관하여 장병들을 통솔할 생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 휘하 장병들의 모범이 되어 전도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육사 세례식을 매년 봄에 갖고 있는 우리교회는 금주 토요일이 되는 19일 오후 2시에 육사 교회당에서 세례식을 갖게 된다. 이날 우리교회에서는 이종운 목사와 담당교역자, 장로, 비전2020 운동본부 위원과 호산나 찬양대가 참석하여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집행하고 찬양을 드리게 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1국 부활절 행사 안내

우리교회 교육1국(국장 오정수 장로)은 20일(주)에 부활절을 맞아 각 교회학교별로 다음의 표와 같이 다채로운

부활절 축하행사를 준비한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관을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장소	행사명
유아부	70.2호	인형극, 달걀장식 및 나눠주기, 종선 나눠주기
유치부	706호	부활절 인형극, 부활절 달걀 나눠주기, 부활을 기억하는 만들기
유년부	701호	유년부 찬양대 찬타타, 전도상 시상, 부활을 알려요(종선과 부활카드를 통한 전도행사), 달걀장식
초등부		노방전도, 달걀 콘테스트, 불우이웃 돕기헌금, 2부 예배시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와 연합찬양, 어린이회 주최 어린이 연극
어린이수요예배	8층로비	부활절 어린이 작품 전시회

# 가상칠언(架上七言)과 함께 하는 고난주간 묵상

김희정전도사(초등부 지도)

2000년 전 히브리말로 골고다, 즉 해골이란 동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인의 죽음을 당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며 하신 최후의 7가지 말씀을 "가상칠언(架上七言)"이라고 한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을 축하하는 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한 종려주일이다. 한 주일동안 예수님의 가상칠언과 함께 하는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란다.

### 1. 4월 13일(주일)

- 찬송 : 145장
- 묵상 : "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 (눅 23:34)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며, 죄 많은 우리를 위한 용서의 메시지이다. 바로 자신이 버림과 저주를 받아 죽어가는 그 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 오늘 나는 그 용서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또 누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겠는가?

### 2. 4월 14일(월)

- 찬송 : 144장
- 묵상 : "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 (눅 23:43)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다.

### 3. 4월 15일(화)

- 찬송 : 135장
- 묵상 :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 (요 19:26,27)

예수님은 마리아를 피조물(여자)로 보시고 창조주로서 관계를 설정하시는 순간이다.

### 4. 4월 16일(수)

- 찬송 : 141장
- 묵상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마 27:46)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계신 예수님은 마지막 고통의 순간, 다급하게, 부르짖으며 외치신다. 우리를 위해 그러한 고통과 절망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자.

### 5. 4월 17일(목)

- 찬송 : 147장

#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 성 금요일 금식

14일(월) - 19일(토) 6일간 새벽 5시30분

우리교회는 우리를 위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고 더욱 은혜로운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고난주간 동안 특별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된다.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며 성금요일인 18일은 해있는 동안 금식하게 된다.

# 부활절 성극제

20일(주) 오후 3시 1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어린이 찬양예배부와 대학부는 부활주일이 되는 20일(주) 오후3시10분부터 4시 50분까지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부활절 성극제를 갖는다.

총 2부로 꾸며지는 이번 성극제에서 1부에 서게 되는 어린이 찬양예배부는 그동안 배운 찬양과 율동을 엮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내 눈을 열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성극을 노래극 형식으로 발표한다.

그리고 2부 순서는 대학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성극을 준비한다.

# 성금요일 연합다락방 예배

## 저녁 8시 웨스트민스터 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되는 이번 주 금요일에 다락방 예배는 교회에 모여 모든 교구가 연합으로 저녁 8시에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드리게 되며 금요 기도회를 대신하게 된다.

· 묵상 : " 내가 목마르다 " (요19:28)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고통을 대변하는, 실제적인 형벌이었다.

"주님은, 정말 아프셨고, 고통스럽게 피흘리시며 죽으셨다..."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겪으신 예수님, 그 깊은 사랑을 목마른 자들에게 전하도록 하자.

### 6. 4월 18일(금)

- 찬송 : 496장
- 묵상 : " 다 이루었다 " (요 19:30)

이 말씀은 곧 인류의 모든 죄악에 대한 완전한 해결의 [선포]였다. "다 이루었다!"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모든 구속의 일을 마무리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감격찬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 7. 4월 19일(토)

- 찬송 : 195장
- 묵상 : "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 (눅 23:46)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했기에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평안히 맡길 수 있었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따라야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 골고다 언덕에 나도 서리라



김강신 장로(12교구)

깊숙이 앓을 수 있는 의자의 주인공은 나이다. 언제나 값비싼 소파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호화스러운 분위기가 편하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편함에 익숙해있고 습관적이다. 그래서 갑자기 딱딱한 의자에 앉게 되면 불편함과 불안감까지 겹치고 시간이 멎기까지 하다.

이런 삶이 내 신앙의 영역까지 침입하여 부활절만 좋고 달걀선물과 예수 부활하셨네, 찬양과 축제분위기만 선호한다. 나의 이 어리석음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부끄러움뿐이다.

수난과 고난이 먼저이고 아픔이 통과한 후에 찾아오는 부활절이 축하 받을 축제인데 앞의 것들은 다 생각하고 기억조차 않은 상태로 부활만을 느끼려고 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절정의 순간이 되기 위해 골고다 언덕이 있었고 거기서 수치와 멸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으며 겿세마네 동산에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죽게 되었다고 제자에게 실도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앓으려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힘쓰고 애써 간절히 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누기는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골고다 사건은 전적으로 나에게 쏟으시

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의 뜻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며 나를 살리셨음이다.

지금 나는 세상의 편함과 안락함에 취해 있을 시간이 아니고 진정한 살림의 축복을 받기 위해 주님과 함께 겿세마네 동산에서 출발하여 골고다까지 행진하는 제자가 되어야겠다.

로마 군병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아보기도 하고 침 뱀음과 모욕을 당해보고 가시관도 써보고 무겁고 힘든 십자가도 져 보아야 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예수님의 절규에 내 것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내 죄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했음을 고백해야 한다.

이번 수난주간에 나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보리라.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서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나를 제물로 드리며 불사르겠나이다' 고백하고 칠 흙 같은 밤을 지새우며 죄와 사망의 삶을 살았던 나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기도하고 싶다.

나에게 아직 부활이 찾아오지 않아도 좋다.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내 발에 먼지를 털어야 하겠고 의와 경건으로 옷 입어야 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증거가 필요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명령에 복종한 발자국이 있어야 한다. 병든 자를 찾아 기도하는 수고가 보태져야 하고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준비되어져야 하겠다. 더구나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때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큰 축제로 축하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한 발짝씩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리라. 주님이 아직 거기 계시기에.

# 닭은 우는데

신동기 권사(12교구)

나는 모른다고  
정말 모른다고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더니

그래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던  
욕망의 여윈 너 시몬아!

어찌  
죽음만도 못한  
목숨의 크기가  
그 사랑의 전부였더니

닭은 우는데  
하늘의 뇌성이  
피속에서 외치고  
심장에서 터지는 울음이  
통곡의 바다를 이룬다,

빌라도 뜰  
베신의 입맞춤으로  
해는 목이 매여 빛을 잃고  
땅이 혼돈하여  
붉게 소용돌이 친다

골고다 언덕  
높이 달린 십자가!  
그 피로  
웃자란 육체를  
분토처럼 씻어버리고

동이 트기전  
오직  
눈물로 하얗게 부서져 내린 맨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아직도 매주 목요일이 되면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하고 달려 나가면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것임요, 그리고 저희의 작은 발걸음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이때에 "부족한 저를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선하다 여기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작은 발걸음을 은마 아파트로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함께 교회 다니세요"

# <70인 전도대 보고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김동진(13교구, 70인전도대 김동진, 김정순 조)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지난 1월 5일 결성된 70인 전도대 김동진, 김정순 조의 김동진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마 아파트로 "사람 낚는 일"을 한 지 석 달 여입니다.

처음의 '차라리 아무도 없으면' 하던 두려운 마음은 차츰 차츰 주여,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바뀌게 하였고 저 혼자서는 도저히 그 일을 해낼 수 없었기에 더욱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절에 나갑니다.", "필요 없어요.", "지금 바빠요.", "....." 저희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반응들이었지만 저희가 맡은 16동, 17동 한 집 한 집 눈도장, 마음 도장을 찍어 나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심방할 가정과 기도해야 할 가정, 관리해야 할 가정이 선별되었고, 영혼을 사랑하게 해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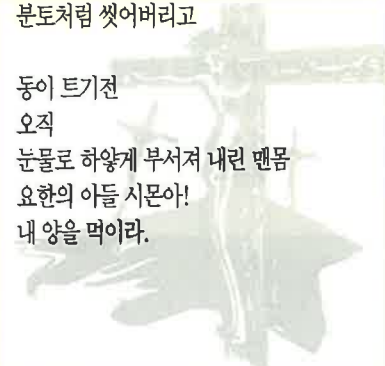
청소가 안됐다면 방문을 거절하는 가정에서 "엄마, 제가 청소할게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저 교회 가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교회를 다녀 보지 못한 가정을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의 반가운 음성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유년부 축구모임을 시작으로 교회소식과 복음을 전하면서 순례자와 설교 테이프를 드렸습니다. 필그림 축구단 발대식에 초청하여 두 자녀와 참석하셨고 저희를 초청하였던 3학년 어린이는 유년부 캠프에도 참가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접

촉 중인 어머니도 꼭 교회로 인도, 저희 다락방 식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서울교회라고요, 저희 두 딸이 착실히 다니고 있어요" 7개월 정도를 마땅한 인도자가 없어 손님처럼 예배만 드리고 있던 가정에 울산에서 가끔 오시는 어머니를 만나게 하셔서 교회에 등록하고, 자녀들이 새가족부에서 기쁨으로 교육받고 있습니다.

"서울교회요, 연락처 좀 주세요" 이 가정은 이사를 앞두고 짐을 꾸리고 계셨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인데 멀리서 이사 오신 이후 교회를 정하지 못하여 신앙생활의 공백이 와서 여러 설교 테이프와 각종 서적들을(불교서적 포함) 보시며 방황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담당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가셨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중 기도를 하며 계속 방문하여 신앙 회복하기를 권면하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집사님, 저 이번 주 교회 갈래요" 예배 참석하시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회에 정착하여 옛 믿음 회복하고 큰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오후 2시, 8층 802호에서 열리는 70인 전도대 교육과 중보기도 발표시간은 영혼들의 천국잔치 시간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 등록하고, 교회를 쉬시던 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기뻐한다는 소식과 보고는 부족하고, 쉽게 낙심하려는 저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열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동참케 하셨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닮게 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어의철 집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이번 부활절에 가브리엘 찬양대가 연주할 John W. Peterson의 "마지막 주간(The last week)"은 제가 오래 전부터 지휘해보고 싶은 곡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브리엘 찬양대가 여러분의 기도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되어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부활절 칸타타로 "마지막 주간"을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숙해졌다고 생각되어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부활절 칸타타로 "마지막 주간"을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 곡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마지막 주간에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극적인 내용으로 이 곡을 감상하시는 여러분은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John W. Peterson은 현존하는 미국의 종교음악가로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교회음악박사와 신학박사를 취득한 영감 있는 작곡가입니다. 그는 34개 이상의 칸타타를 작곡

했는데 특히 "마지막 주간"은 듣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들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곡을 가브리엘 찬양대원들에게 가르치고 하나하나 다듬으면서 예

수님을 매일 십자가 못 박은 제 자신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가 지난 해 성탄절 연주를 하고, 채숨을 돌리기도 전에 또 부활절 연주를 맡게 되어 고된 연습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으로 연습 시간에 임해준 찬양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가브리엘 찬양대의 부활절 연주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베들레헴으로 오세요

임광호 집사(13교구)

주일 저녁 찬양예배의 베들레헴 찬양대는 은혜의 장이며 교계의 장입니다. 지난 해에 등록한 저는 서울교회에서 처음 찬양예배를 드리던 날,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며 어느 교회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감동과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부터 흰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까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 자리에 서야겠다. 라는 강한 의지가 생겼었습니다.

말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들레헴 찬양대원들은 거의 이른 아침부터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고 찬양예배의 찬양대원으로 서시는 분들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면서도 피곤한 기색 없이 기쁜 모습으로 베들레헴 찬양대로 모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지휘자 임훈규 장로님의 열과 성을 다한 지도, 대장 장로님과 임역원들의 겸손히 섬기는 모습, 대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베들레헴 찬양대는 이른바 금녀구역입니다.

서울교회 남자 성도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가끔씩 찬양예배를 빠져서 마음이 째째하신 분, 베들레헴 찬양대에 오시면 확실하게 주일성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신-

#### <열린 프로그램 등록 안내>

총 10주간의 일정으로 개강한 열린 프로그램의 등록 접수가 계속되고 있다. 등록비는 과목당 10,000원으로 사무국에서 접수하고 있다.

#### <서울 주부대학 문화 탐방>

서울 주부대학은 커리큘럼에 따라 오는 15일(화) 문화 탐방에 나선다. 장소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황릉레 도에 연구소 및 중남미 박물관으로 당일 오전 10시에 602호실에서 경건회를 갖고 출발할 예정이다.

### 편지왔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3월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었던 청교도 신앙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님의 큰사랑을 받고 돌아온 권능 충만한 교회의 이성수 목사입니다.

돌아오는 즉시 감사의 서신을 올리려 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이제서야 서신을 올립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의한국 방문은 2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이어서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급속히 부흥 성장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서울교회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어 큰 흥미가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잠시 시간을 보내면서 영접위원들의 영접과 버스를 타고나서 식사 배급과 이 후로 진행된 모든 과정은 훈련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빈틈없는 진행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세미나에 참석케 한 배려는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입니다.언제가 되든 우리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때가 오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당회장 되시는 이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 그리고 교역자 여러분, 제직들과 성도들과 교회 위에 다시한번 깊이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보답할 길 없지만 만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서크신 복으로 갚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넘치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3년 3월31일

권능 충만한 교회 목사 이성수 드림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7일(목) 해병대 초대교회 헌당식, 19일(토)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에서 설교한다.
- 기증: 하차욱 장로(서울 믿음교회) 파이프 오르간 설치공사를 위한 휘장막 기증
- 이사: 유기찬 윤용미 집사 가정(14교구) 양재2동 예미파크 502호 571-0502
- 개업: 김오른 성도(김태기 장로 차남, 4교구) 오알엔 아키텍처 건축사 사무소 개업 548-4238
- 급주의 식사: 김성준 집사, 김선영 집사 가정 -이들 김동환 인제의대 수석합격-
- 목회자세미나 식사제공: 양춘경 집사 이인숙 권사 가정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개인, 가정, 교회되도록
2. 2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을 맞출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